

1977년 9월 9일 청계피복노조 결사투쟁 사건

민중덕

청계피복노조는 어떤 노조인가

청계피복노조는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1970년 당시 평화시장 일대는 우리나라 기성복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피복제조공장의 밀집 지대로 노동자 10~30명 규모의 수백 개 공장에 전체 노동자가 2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2만여 명이 종사하는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이 너무도 열악하여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우선 작업장 환경을 보자면 비좁은 먼지구덩이에다가 다락방까지 만들어 작업장으로 활용했다. 그렇지만 환기시설이나 조명 시설도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심지어는 13시간씩 일을 해야 했으며 휴일도 한 달에 두 번밖에 없었다. 더구나 추석이나 설 대목 때가 되면 철야작업을 해야 했고 휴일도 없었다. 임금 또한 너무 적어서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이제 갓 초

등학교를 졸업한 14살 어린 소녀부터 18세 정도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렇게 비참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전태일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차비를 털어 굶고 있는 어린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사 주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시다의 일을 대신 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태일은 자신이 공장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재단사가 되었다. 재단사가 된 전태일은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일을 했지만 노동조건은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태일은 동료들을 조직해서 평화시장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알리고 힘 있는 기관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힘 있는 기관은 전태일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는커녕 기만하고 감시하는 데 급급했다. 전태일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는 지켜지지 않는 장식에 불과했다. 오히려 이 장식 때문에 노동자들이 보호되는 것처럼 위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장식은 태워서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태일은 노동자가 스스로 각성하고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조건 개선도,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마침내 전태일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비롯해 서민들의 각성과 단결된 투쟁을 호소하고 촉구하며 평화시장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분신을 단행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외치며 산화했던 그는 당시 스물두 살의 꽃다운 청춘이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의 이같은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 전태일의 친구, 평화시장 노동자 그리고 사회 각계의 지대한 관심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탄생한 청계피복노조는 해



청계노조 당시의 중견조합 활동가들의 조직 교육장면

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오직 어용노동조합만 존재했던 상황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0월 유신과 청계피복노동조합

군부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라는 명분으로 민중을 수탈하고 인권을 짓밟았다. 그 결과 전태일 분신 사건에 이어 광주대단지 사건, 파월 기술자들의 KAL빌딩 사건 등 노동자 서민들의 투쟁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정권유지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막아 사실상 노동운동을 금지시켰다. 박 정권의 민주주의의 말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침내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함으로써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긴급조치라는 파쇼악법으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고 지식인 학생 정치인들의 민주화 요구를 압살하기에 이르렀다.

유신정권은 서민대중들의 생존권 투쟁에 기폭제가 된 전태일 분신 항거의 상징인 청계피복노조에 대해 교활하고 폭력적이면서 집요한 탄압을 자행했다. 유신정권의 노조탄압은 우선 청계피복노조에서 전태일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기도했다. 중앙정보부는 전태일 일기를 소지하거나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순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전태일 사진을 게시하거나 소지하지 못하도록 탄압했다. 정보당국은 또한 조합 간부 중에서 전태일의 뜻에 충실한 간부라고 여겨지면 이들을 해임시킬 것을 직접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들 시켜 전임급료를 주지 못하게 했다. 전임급료를 받지 못하는 조합 간부들은 조합비에 의존해서 생활하게 되었고 정보당국은 아예 조합비 각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방해했다.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으로 노조를 고사시키는 한편 조합 간부들을 감시하면서 조합 간부들이 재야인사, 종교인, 학생들과 연대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았다. 조합 간부 중에 재야 민주인사와 연결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간부를 해임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

정보당국의 이러한 탄압은 청계피복노조를 기존의 한국노총 산하의 어용노조처럼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 다분했다. 실제로 조합 간부 중 일부는 한국노총 산하 상급노조에서 파견되기도 했다. 이들 파견된 조합 간부를 한편으로 하고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해 전태일의 친구인 조합 간부 노동자가 한편이 되어 많은 갈등과 내부 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계천 평화시장의 비참한 노동조건 개선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애초 전태일 분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노동조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만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의 근본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폭압적인 조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요, 전태일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자주

성을 지키는 일이었다. 유신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은 노동조합을 무력화 또는 어용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맞서 청계피복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상층부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도 하부 조합원들이 투쟁을 조직해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지켜 나가는 방법을 구사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어머니와 하부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투쟁조직을 이끌어 내어, 1975년 노동시간단축을 관철시키고 이어 1976년 임금인상 투쟁, 시다임금 직불제 관철 등을 성사시켰다.

이 투쟁은 유신정권하에서 노동자들의 농성, 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75~1976년의 이러한 투쟁의 결과 청계피복노조 간부 중 한국노총산하 상급단체에서 파견된 간부는 모두 물러나게 되고, 동시에 일선 조합원으로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앞장섰던 세력이 집행부를 맡기에 이르렀다.

새로 등장한 집행부는 조합원 중심의 대중사업, 이를테면 노동교실을 통한 조합원 교육, 각종 소모임 조직 활동 등을 열심히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교실을 중심으로 타 사업장과의 연대 활동,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청계피복노조의 이러한 활동에 유신정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청계피복노조의 힘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 힘의 원천을 파괴하기 위해 공작했다. 즉 청계피복노조의 힘의 원천은 노동자들이 모이고, 배우고,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는 장場, 바로 노동교실이고 그 노동교실의 중심에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소선 어머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유신정권은 1977년 8월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시키고 동시에 노동교실을 폐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교실을 둘러싼 청계피복과 유신정권의 공방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은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배우지 못한 한

을 풀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계노조는 초창기부터 7평밖에 되지 않은 비좁은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중등과정을 가르치는 노동교실을 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배움의 욕구를 7평밖에 되지 않은 조합사무실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던 차에 1973년 당시 부녀부장이 청와대의 옥영수 여사에게 청계천에 노동교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노·사 그리고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가 협력하여 노동교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보당국자와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실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뒤집어 엮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노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했고 노동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에 노동교실의 운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투쟁하였다. 그러나 사용주를 앞세운 정보당국자들은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도시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의 공간으로 노동교실을 활용하고자 했다. 유신정권과 청계피복노조 간의 이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노동교실은 조합원들의 거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러자 노조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제공한 동화상가 옥상 건물에서 빠져 나와 별도 건물에 노동교실을 마련하고 노조가 중심이 되어 노동교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로 마련한 노동교실도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에서 파견한 간부가 노동교실 실장을 맡았다. 그러다가 1976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교실 실장도 이소선 어머니로 바뀌었다. 이소선 어머니가 실장으로 있는 노동교실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노동교실로 배움의 장, 모임의 장, 투쟁의 장, 연대의 장, 나눔의 장이 되었다.

유신정권은 이렇게 달라진 노동교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노동교실을 없애고 이어 노동조합까지도 없애 버린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유신

정권은 그 첫 번째 시도로 1977년 8월 23일 이소선 어머니를 범정부독이러는 명목으로 연행하고 동시에 노동교실을 폐쇄시켰다.

노동교실을 지키기 위한 77년 9월 9일 결사투쟁

1977년 9월 9일, 노동교실을 지키기 위한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결사적인 투쟁을 당시의 생생한 기록으로 보자.

1977년 9월 3일, 서울지법 성북지원 법정에서 열린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제2회 공판에서 검사는, 누구의 눈에도 뻔히 들여다보이는 엉터리 증인(형사)을 억지로 내세우고, 도저히 인간의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비열하고 악의에 찬 엉터리 논고를 한 끝에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또한 판사는 검찰 측의 증인만 받아들이고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버렸으며 변호사와 방청객들을 교육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하였다.

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평화시장 일대에 견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한편 9월 5일경에는 경찰이 두 달 가까이 불법 점거하고 있던 노동교실이 완전 폐쇄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경찰 측의 집요한 압력에 견디다 못한 노동교실 건물 주인이 마침내 평화시장 노동자들과의 임대계약(보증금 900만 원, 월세 6만 원, 계약기간은 1977년 12월 31일까지)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실을 보증금 600만 원(월세는 없음)에 임대하였고, 새 입주자는 노동자들에게 9월 10일까지 교실을 비우지 않으면 모든 교실 집기와 책상 걸상 따위를 들어내 버리겠다고 통고해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자들 사이에는 폭발 직전의 치참한 공기가 감돌았다. 드디어 9월 8일, '결사(決死) 선언'이라는 제목의 비장한 격문이 시장상가 일대에 뿌려졌다. 이 선언문에서 노동자들은 "시장상가 2만여 여러분! 그리고 6백만 노동자 여러분……이대로 우리의 소중한 어머니와 노동교실을 빼앗긴다면 저들은 우리의 모든 희망과 권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저들은 제2

의 전태일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 어머니와 노동교실을 되찾고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음의 항쟁을 선언한다”고 부르짖고 “어머니 즉각 석방”, “폭력경찰 처단”, “노동운동 탄압 중지와 노동 3권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이튿날인 9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시장 일대에 깔린 사복 형사들의 눈을 피하여 노동교실 앞으로 몰려갔다. 교실 건물의 정문 앞에는 2명의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앞장섰던 민종덕(당시 25세, 노조 총무부장)이 그들에게 “우리 교실에 좀 들어가겠습니다”라며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민종덕의 목살을 잡고 뒤에서 두 팔로 민종덕의 목을 졸랐다. 이때 신승철(21세, 본명 신광용, 재단보조)이 민종덕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경찰에게 석유를 뒤집어 썩혔고 다른 여공들이 또 한 명의 경찰을 습격함으로써 경찰들이 쫓겨갔고 이 틈에 노동자들 40명이 교실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이미 기동경찰대가 노동교실 앞에 도착하여 겹겹이 교실 주위를 포위했고 나머지 노동자들을 교실 밖으로 쫓아냈다. 교실에 들어간 40명의 노동자들은 급히 교실로 통하는 입구의 셔터를 내리고 3층에 있는 책상과 의자 따위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창문과 문을 막았고 그 중 일부는 4층으로 올라가서(교실은 3층과 4층에 있는 방 4개를 쓰고 있었음) 마찬가지로 작업을 했다.

이때 기동경찰대에 가로 막혀 교실에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200여 명의 노동자들 중 일부가 교실 건물과 인접한 이웃 3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와서 교실 4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건너갈 테니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웃 건물 옥상에서 4층 교실로 뛰어 넘어오다 자칫 한 발만 헛디디면 떨어져 죽을 판이었으나, 노동자들은 창문 하나를 깨서 동료들이 건너오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14명이 건너왔을 때 또다시 기동경찰이 밀어닥쳐 나머지 노동자들은 미처 건너오지 못하고 쫓겨 내려갔다.

3시경, 기동경찰대는 이웃 건물 옥상에 뺑뺑이 들어차서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교실들의 창문으로 몰려들었으며, 그 중 50여 명은 노동교실 옆에 붙어 있는 가정집의 문을 부수고 교실 건물 내부로 들어왔다. 그들은 한 손에 수갑 하나씩을 들고 있었고 어깨에는 최루탄 기구를 둘러맸으며 또 한 손에는 곤봉을 쥐고 있었다.

이때부터 노동자들과 경찰대 사이에 실로 처참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4개의 교실마다 입구까지 쳐들어온 경찰들이 휘두르는 곤봉에 대항하여 형광등, 거울, 책장유리 따위에서 깨어낸 유리조각들을 집어던졌고 남자들은 걸상 등에서 빼낸 몽둥이 따위로 경찰에 대항하였다. 이웃 건물 옥상에서 유리 창문으로 넘어 들어오려던 기동대들은 이 기세에 눌려서 한 사람도 넘어오지 못했다. 한편 건물 안에 들어온 경찰들은 바리케이트로 쌓아 놓은 책상과 걸상들을 집어던져 부수어 버리고 셔터를 올려서 아래층과의 통로를 트고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마구 구타하였다. 임경숙(15세, 미성보조)은 7월 10일 영등포서에서 얻어맞았던 허리를 이 통에 다시 다쳐서 쓰러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갔다. 이때 3층에는 노동자가 4~5명밖에 없었는데 20여 명의 경찰이 방안에 들이닥쳤다. 노동자 민중덕이 창문을 위로 열고 올라가서 기동대에게 “물러가지 않으면 내가 뛰어내려 죽겠다!”고 소리쳤다. 이순자(24세, 노조 부녀부장)가 울면서 민중덕을 붙들려고 하였으나, 기동대가 그의 말을 들은 척 만 척 한 채 노동자들을 끌어내려고 하자, 민중덕은 그대로 땅으로 뛰어내려 사지를 뺀고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4층에서는 노동자들이 재단판 2개로 문을 막고 싸우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것을 부수고 방으로 들어오려 했다. 이때 신승철이 경찰들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울 유리를 깨어 들고 창문 위로 뛰어 올라서 유리조각으로 두 차례 배를 가르고 “물러가지 않으면 모두 다 뛰어

내리겠다”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또 박해창(20세, 재단보조)은 유리조각으로 팔의 동맥을 끊으려고 팔을 15cm 가량 그었다. 두 사람 모두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은 방안에 있던 신문지 등을 모아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는, 경찰들을 향하여 “들어오면 다 같이 죽자!”고 울부짖었다. 순식간에 온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찼고, 재단판도 시꺼멓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극도로 당황한 경찰들은 모두 물러갔고 얼마 후 소방대가 소방호스로 물을 뿜어 넣어 타오르는 불길을 잡았다. 소방대가 뿌린 물이 교실 바닥에 고이자, 신승철의 배와 박해창의 팔목에서 흘러내리던 피가 번져서 온 방 안이 벌겋게 물들었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흥분하여 모두 창문으로 몰려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개미떼처럼 모여 있는 기동경찰들에게 “어머니를 당장 모셔 와라! 모셔 오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경찰 측은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 모두 내려오라”라고 희유작전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중부서장과 정보과장은 길에서 마이크로 “지금 어머니를 모시러 갔으니까 흥분을 참고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방송했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으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노동자들은 또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오후 6시경, 노동자 김주삼(21세, 재단보조)이 유리조각으로 배를 몇 차례 그었다. 신승철은 다시 “어머니를 모셔 와라!”라고 외치면서 한 번 더 활복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전순옥(27세, 이소선 여사의 장녀)이 옷통을 벗어서 아래로 던지고 창문에 올라가 땅으로 뛰어내렸다. 순간 몇 명의 여공들이 급히 전순옥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였다. 전순옥은 발 하나만 잡히고 머리는 땅을 향한 채 창 밖으로 공중에 매달려 발을 버둥대면서 “놓아라! 날 죽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노동자 김석태(21세, 재단보조)가 뛰어와서 전순옥을 끌어 올려 번쩍 안아다가 구석방에다가 가두어 버렸다.

1975년 제5차년도 대의원대회



1975년 청계피복노조 대의원회의

또 이때 임미경(15세, 미성보조)이 옷통을 벗고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다른 창문 위로 뛰어 올라가 배를 긁고 뛰어내리려고 하였다. 다른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유리조각을 빼앗고 창문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임미경은 뿌리치면서 “평화시장에서 남자 한 사람(전태일) 목숨 바쳤으니, 제 2의 전태일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 판 사람 희생할 것 없이 내가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몸부림을 쳤다.

두 번째 할복한 신승철은 노동교실 아랫길과 이웃 건물 옥상에 가득 찬 경찰들을 향하여, “앞으로 40분간 여유를 주겠다. 그 안에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셔 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여기 들어와서 같이 죽자. 왜 우리만 늘 착취당하고 혹사당하다가 죽을 때도 억울하게 혼자 죽어야 하느냐? 빨리 모셔 오든지 같이 죽든지 40분 안에 결단하라!”고 외쳤다. 다른 노동자들도 이웃 빌딩 옥상에 올라와 있는 중부서 정보과장과 기동경찰들을 보고, “빨리 들어 오라! 우리가 기운 있을 때 당신들 하나라도 더 죽이고 같이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정보과장은 경찰들을 보고 “다들 내려가라!”고

고함을 질러 철수시켰으며 어머니를 40분 안에 데려올 테니 진정하라고 회유하였다.

이 무렵부터 40분 남짓, 노동자들은 “어머니를 석방하라!”, “노동교실을 돌려 달라!”고 쓴 종이 플래카드를 건물에다 펼쳐 내려뜨리고 창문에 몰려서서 ‘억울가’, ‘투쟁가’ 등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인근 건물들의 창문이나 옥상에는 사람들이 뺨뺨이 몰려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기동대는 교실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었다.

4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노동자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자, 양승조(29세, 노조지부장)가 올라왔다. 그는 “저 사람들(경찰)이 어머니를 석방하는 데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 한 열흘은 걸린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교섭을 더 해 보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는 내려갔다.

8시 반경이 되어 지부장이 다시 올라왔다. 그는 노동자들이 요구한 사항, 즉 1. 이소선 어머니의 석방 2. 노동교실을 원 계약기간인 12월까지 사용하도록 해 줄 것 3.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신문도 하지 않으며 구속하지 않는다 등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경찰에서 받아들였으니 내려가자고 권유하였다.

지부장의 해산 제의를 둘러싸고 노동자들은 약 1시간 반가량 논쟁을 벌였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찰 측의 각서가 없는 한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버텼다. 이 사이에 아랫길에서는 경찰 책임자들이 계속하여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 그만 내려 오라”고 마이크 방송을 했다.

밤 10시경이 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승철, 박해창 등의 동료를 생각하여, 또 지부장의 간곡한 권유와 “지부장의 입장을 살려 줘야 한다”는 일부 노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약속을 한 번 믿어 보기로 하고 아래층으로 모두 내려갔다.

53명의 노동자들이 교실 문 앞으로 내려가자, 문 앞에서부터 큰길까지 양쪽으로 기동경찰들이 물샐틈없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이 큰길 입구까지 다 다랐을 때 철조망을 친 기동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을 전부 실어서 중부서로 데리고 갔다.

노동자들은 중부서 지하 대기실로 옮겨졌다.(신승철은 영락병원으로 보내어 집) 잠시 후 과장과 계장이 내려와 소리를 지르고 형사들이 우르르 내려와 노동자들의 주소, 성명, 부모의 이름 등을 적고 한 사람씩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노동자들은 “속았다”고 외치면서 통곡하였다.

첫 번째로 전순옥, 이숙희(25세, 노조 교선부장), 김주삼, 이순자, 신순애(24세, 노조 부지부장) 등이 정보과로 불러 올라가 진술서를 받았고, 나머지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차례로 불러 올라갔다. 정보과에서 진술서를 받고 난 노동자들은 일단 지하실로 내려왔다가 곧이어 수사과로 불러 올라가 신문을 받았는데, 형사들은 “야, 이년들아!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데 니네들은 거기서 배워 가지고 이소선이 보고 어머니라 부르느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무수히 구타하였다. 수사의 초점이 된 것은 이번 일을 모의한 사람, 방화와 구호선창을 한 사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리를 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었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장선애(14세, 시다)와 같은 열네 살짜리 어린 소녀들도 따귀를 얻어맞고 발길로 채이는 등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텼다. 김주삼은 모의, 동원, 방화 등을 모두 자신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형사들은 그를 의자에 앉혀 놓고 따귀를 때리고 구둣발로 무릎을 까고 다시 일으켜 세워 놓고는 두 발을 구둣발로 짓밟아 이겨 놓았다. 신순애에게는 장 계장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려서 땅바닥에 앉혀 놓고 발길로 차고 따귀를 때리며 “X같은 년”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취조는 밤을 세워 계속되었으며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노동자들이 꾸벅 즐기라도 하면 형

사들이 따귀를 때려서 꼬박 밤을 새우게 만들었다.

이튿날인 9월 10일 오후 5시, 체포된 53명의 노동자 중에서 14명을 제외한 39명이 석방되었다. 석방된 사람에게는 한 사람마다 형사 한 사람씩 집까지 따라가서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는 집의 부모를 만나서 “앞으로 공장에 내보내지 마라. 월급은 얼마씩이나? 돈이 없으면 우리가 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남은 14명 중 장선애를 포함한 9명은 즉결에 넘어갔고 이 중 장선애는 형사 미성년자(14세)라 하여 중부서에서 닷새만에 풀려났고 8명은 구류 15일씩을 받아 성동경찰서에 2명, 동대문서에 2명 그리고 남대문서(숫자 불명) 등에 수감되었다. 이들 9명은 즉결에 보내지기 전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세웠는데 밤중에 철창을 열고 나와서 지키는 형사를 두들겨 팼다가 또다시 형사들에게 무수히 구타당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9월 10일 ‘방화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를 씌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신승철, 김주삼은 구속되고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다음날 이숙희, 신순애, 임미경은 수사과에서 다시 조서를 받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수사과장, 주임 및 수사과 형사들은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 구속을 시키고 싶으면 잘 아는 정보과에서 조서를 받을 일이지!” 하며 신경질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애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꼭 구속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한참 후 정보과 형사들이 수사과에 내려와 무어라고 지시를 하는 듯 하더니 신순애, 이숙희의 경우 75년도 교실 찾기 농성, 전태일 동지의 추도식, 노동시간 단축 때의 농성, 삼양사 사건, 와이셔츠 임금인상 농성 때의 활약 등을 조사했으며 임미경의 경우 그동안 농성과 시위 때 앞장선 것을 문제 삼으며 조서를 받았다. 이튿날 신순애, 이숙희, 임미경에게도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이들 구속자 및 구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것이 있다’는 구실로

면회가 일체 금지되었고, 이들은 단식투쟁을 벌였다. 구속된 임미경은 10일 오후 일부 노동자들이 풀려나갈 때 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나는 조합을 위해 싸우다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아무 후회 없다. 내 언니네 집에 있는 옷가지를 모두 조합 사무실이나 창동(이소선 여사 자택)으로 옮겨 놓고 나중에 내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다 불태워 달라”고 당부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통곡하였다. 다른 구속자들도 “우리는 안에서 단식투쟁밖에 할 수 없으니, 나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계속 싸워 달라. 부탁은 이것 하나뿐이며 우리 신상은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피를 많이 쏟았던 신승철은 배의 갈라진 자리가 통통 부르텠고 농성이 풀리면서 곧 중부서 지정병원인 영락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 측에서는 상처가 깊은 부분을 다섯 바늘가량 꿰매고 다른 상처도 약을 발라서 장기간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일체 치료를 거부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조서를 받으러 와 있는 형사에게도 조서를 거부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다음날 9월 10일 새벽, 경찰은 병원에 있는 그를 중부서로 데려가, 유리창 옆 지하실에다 감금하고 고문했는데 20m 떨어진 곳에 갇혀 있던 다른 노동자들의 귀에도 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는 구속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조서를 거부하였다.

한편 3층에서 떨어졌던 민종덕은 곧 영락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척추가 부러져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병원 측은 첫날 그의 양팔에 석고붕대를 감고 응급처치로 주사 1대를 놓고 엑스레이를 15번 찍은 후로는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 명령을 내렸다. 그가 입원하던 날부터 경찰은 영락병원 주변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경찰 2명이 입원실에 들어와 같이 잠을 잤는데, 치료비 문제가 제기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두 철수해 버렸다.

민종덕은 같은 해 7월 초에 가스 질식으로 숨진 협신피혁 노동자 고 민종

진 씨의 동생이다. 민종덕의 부친은 입원실에서 형사들에게 “나는 당신들
풀 보기 싫으니까 당신들이 간호, 치료 다 해 주겠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나
가겠다. 아니면 당신들이 나가라!” 라고 말했다. 민종덕은 9월 11일자로 불
구속 입건되었다.

결사투쟁 이후의 청계피복노조

이 결사 투쟁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 중 임미경은 1978년 2월 6일 집
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신순애, 이숙희는 1978년 6월에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나머지 신승철, 김주삼은 1979년 4월에
징역 1년 6월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특히 당시 임미경의 경우 만 14
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이 불가능한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유신정권은 임미
경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구속시킨 사실이 사건 발생 20
여 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다. 이소선 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8
년 8월에 만기 출소했다.

청계피복노조는 노동교실을 지키기 위한 결사투쟁으로 말미암아 구속,
부상 그리고 조합원 감시라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정부당국과 사용자
측에서는 이 틈을 이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등의 압박을 계속
가해 왔다. 그러나 결사투쟁이라는 극한적인 투쟁을 불러 온 폭력적인 탄압
보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로 목을 조여 왔다. 그러나 구속된 간부들이 하나
둘씩 석방되어 노동조합에 복귀하면서 노동조합의 힘이 점차 회복되었다.

드디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과 유신정권의 붕괴로 청계피복
노조 역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1980년 4월 서울의 봄 기간 동안 17
일간의 임금인상, 퇴직금 전면 실시 등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을 모범적으로
전개하여 1980년 봄 노동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또다시 1980년 5·
17 신군부의 쿠데타로 청계피복노조는 탄압을 받게 되고 끝내 1980년 12월
에 합동수사본부는 조합 간부들을 강제연행하고 이어 1981년 1월에 청계피

복노조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에 청계피복노조는 군부독재의 노조 강제해산에 맞서 1981년 1월 30일 아프리(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한국사무소에서 결사적인 투쟁을 벌였으며 이 사건으로 청계 조합원 10여 명이 구속되고 수배되었다. 이로써 청계피복노조는 완전히 해산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비밀리에 조직을 하고 노조 재건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1983년 아프리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조합원들이 하나 둘씩 석방되고 이들이 밖에서 조직 활동하던 그룹들과 합류하면서 노조 재건을 표면화시키고 드디어 1984년 4월 8일 청계피복노조를 복구하고 군부독재가 불법부당하게 해산시킨 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국은 복구된 청계노조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탄압했지만 노조는 노학연대 투쟁으로 맞서 싸웠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구속, 수배를 거듭 당하면서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까지 노조를 지켰다. 이 결과 청계피복노조는 1988년 끝내 합법성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계피복노조는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아무리 폭압적인 탄압이 가해져 온다 해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투쟁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의 자존과 주체성을 잃지 않았다. 따라서 청계피복노조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전태일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각오한 불굴의 투쟁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

민종덕 crsl100@hanmail.net | 전태일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및 청계천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청계피복노조위원장 역임.